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달호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질문제목	정보공개 및 정관, 최신정보 관리 부실 내부규칙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		
<p><질문내용></p> <p>○ 정보공개운영규칙(이하 “규칙”) 제4조를 보면,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안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공표목록은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나요?</p> <p>○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를 보면, 조례 및 정관은 변경시기 마다 공표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경영공시란에서 정관을 찾아 들어가보면 가장 최신자료가 2014년으로 올라와있음. 수정을 요청함.</p> <p>○ 산업진흥원 정관은 2014년 이후 12번에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철저한 관리를 요청함.</p>			

○ 또한, 노동조합현황은 연1회 공표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역시 2017년 이후 공개한적 없음.

위에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하여 연1회 또는 분기별로 공표되어야 하는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음. 확인 후 조치해주시기 바람.

○ 또 다른 사례로는 「시설서비스직 운영규칙」 제51조 제1호를 보면 제8조 및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8조는 2019. 12. 31.자로 삭제됨.

수정을 요청함.

○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현재 산업진흥원의 정보공개사무가 매우 미흡한 점이 보임.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보시길 권고함.

○ 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운영규칙 등 내부규정을 각 규칙별로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음.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규정집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하기 불편함. 각각 관리를 요청드리며, 재단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음.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안내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세부기준

사전정보공개

· 행정정보

· 정보목록

· 경영공시

· 회의록 및 결재문서

· (구)회의록 및 결재문서

· 회의록

· 계약정보

공공데이터개방

경영공시

전체 ▼ 정관 Q

번호	제목
2	서울산업진흥원정관 20140819 (공)
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서울산업진흥원정관 (공)

1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안내

사전정보공표

비공개 세부기준

사전정보공개

· 행정정보

· 정보목록

· 경영공시

· 회의록 및 결재문서

행정정보

SBA는 업무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문서에 대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SBA 노동조합 현황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7년12월

노조위원장 : 용명문
 사무국장 : 박영일
 청사부장 : 박원주
 노조원 : 303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서울산업진흥원)

질문의원명	김달호	소속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질문제목	정보공개 및 정관, 최신정보 관리 부실		

- 정보공개운영규칙(이하 “규칙”) 제4조를 보면,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고,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안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공표목록은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나요?

(답변내용)

매년 공표목록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4개 항목, 103개 업무를 게재하였으며

2020년에 41개 항목, 124개 업무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음.

- 정보공개의 사전정보공표를 보면, 조례 및 정관은 변경시기마다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경영공시란에서 정관을 찾아 들어가 보면 가장 최신자료가 2014년으로 올라와 있음.

수정을 요청함.

- 산업진흥원 정관은 2014년 이후 12번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철저한 관리를 요청함.

<답변내용>

홈페이지 내 게재하는 조례 및 정관은 2014년도 등록 이후 홈페이지 내 사규 및 관계법령(규정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질문주신 정보공개-경영공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정관 안내 링크가 수정된 링크로 변경되어 있지 않아 수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준 개정된 사항까지 모두 공개처리 완료하였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정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시 바로 경영공시에 공지하도록 하겠음.

- 또한, 노동조합현황은 연1회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2017년 이후 공개한 적 없음.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하여 연1회 또는 분기별로 공표되어야 하는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음. 확인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노동조합현황은 연1회 공표하고 있음. 홈페이지 내 검색 관련 띄어쓰기 문제로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사항을 해결하였음.

현재 동일한 제목형태로(2019 노동조합현황, 2018 노동조합현황, 2017 노동조합현황) 검색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 또 다른 사례로는 「시설서비스직 운영규칙」 제51조 제1호를 보면 제8조 및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8조는 2019. 12. 31.자로 삭제됨. 수정을 요청함.

〈답변내용〉

12월중 개최되는 제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즉각 수정토록 하겠음.

-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현재 산업진흥원의 정보공개사무가 매우 미흡한 점이 보임.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보시길 권고함.

〈답변내용〉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관련 및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시 운영하고 있음. 서울산업진흥원은 최근 3년간 이의신청 및 비공개건수가 단 한건도 없이 처리를 진행하였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심의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타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운영규칙 등 내부규정을 각 규칙별로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음.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규정집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하기 불편함. 각각 관리를 요청드리며, 재단 규정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음.

〈답변내용〉

12월말까지 정관, 규칙, 규정으로 파일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겠음. 또한 파일 다운로드 기능 추가 및 정기적 관리체계 수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단규정 업데이트 등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작성 자	작성부서	직 위	성 명
	정보서비스팀	팀 장	정혁
	2222-3851	담 당	손봉균
	작성일	2020. 12. 11	